

노인가구의 소비실태 분석

-소비는 개인 및 가구의 욕구를 보여주며, 특히 노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위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짐

-이에 노인가구를 55~64세(예비노인가구), 65~74세(연소노인가구), 75세 이상(고령노인가구)으로 구분해 소비실태를 살펴보고자함

1. 노인가구의 소비실태

[표1]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(2008년) (단위: 원)

	총소비지출	식료품	주거	광열수도	가구집기가사	피복신발	보건의료
55-64세	1198691	319076.8	60320.87	66200.47	42431.56	55194.47	79209.6
65-74세	849706.5	247832.3	40297.61	60672	30001.87	30828.27	95000.28
75세이상	609742.7	189319.5	34577.71	54449.03	33111.08	16601.52	90453.02
	교육	교양오락	교통통신	기타	외식	기타서비스	사교육
55-64세	25707.13	52146.04	210292.2	288112	126482.5	6648.74	7125.669
65-74세	13504.96	33217.83	109178.7	189172.6	64488.19	6512.657	6351.693
75세이상	7070.431	21304.89	59995.19	102860.3	38805.82	15054.4	3218.28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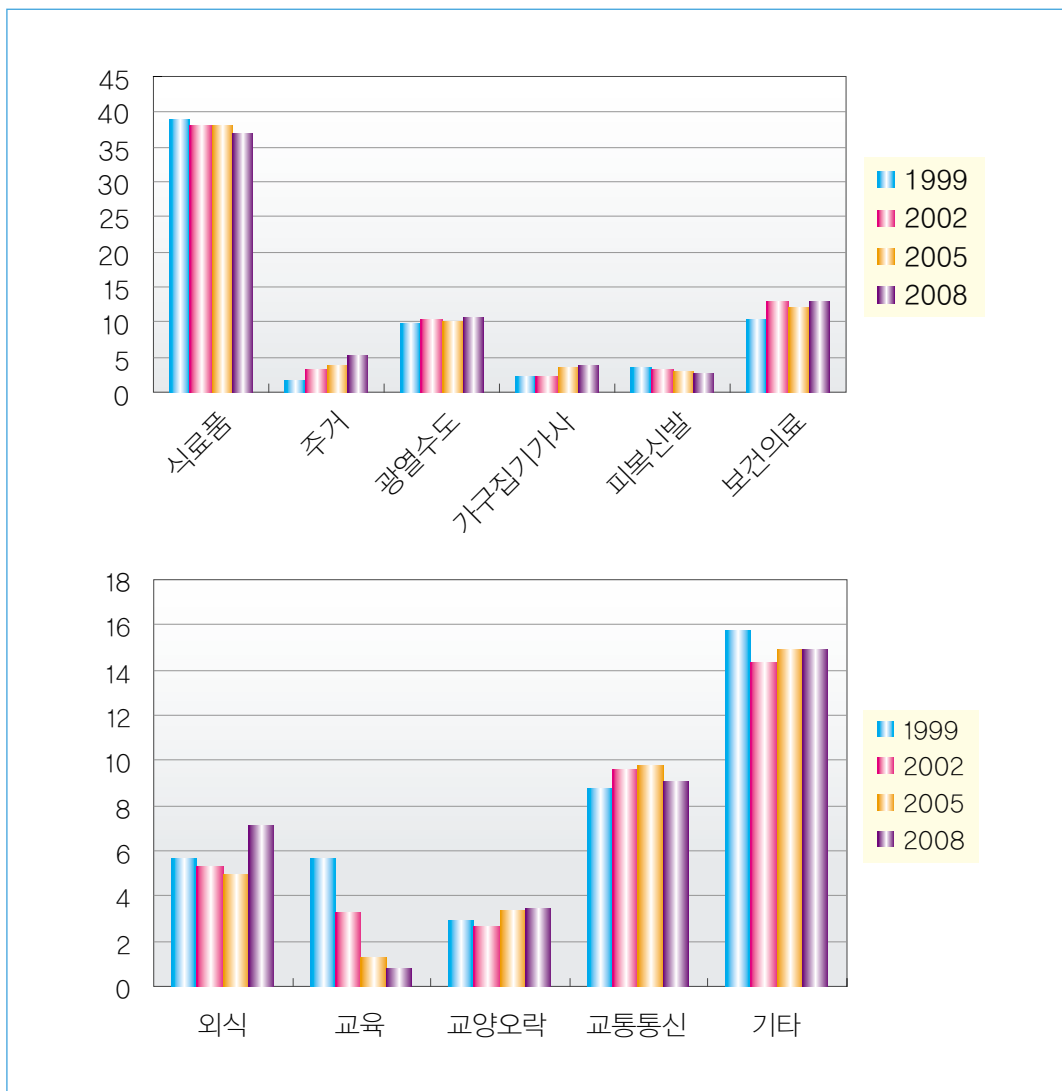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노인가구 중 예비노인 가구(55-64세)는 월 평균 1,198,691 원, 65-74세의 연소 노인가구는 평균 849,706.5원, 고령노인가구(75세 이상)는 평균 509742.7원을 소비에 지출
- 대부분의 비목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보건의료와 가사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출금액은 노인가구의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 - 55-64세 예비노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79,209.6원, 65-74세 노인가구의 경우 평균 95,000원,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월 평균 90,453.02원을 보건의료비에 지출
 - 55-64세 예비노인 가구의 경우 가사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출이 월평균 6648.74원인 반면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평균 15054.4원으로 2배 이상 증가
- 외식, 교통통신비 지출은 55-64세의 예비노인가구가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지출을 보이는 비목

○ 55-64세 가구는 외식에 월평균 126,482.5원을 지출하는 반면 75세 이상 노인가구는 38805.82원 지출

○ 55-64세 가구는 교통통신비에 월평균 210292.2원을, 75세 이상 노인가구는 59995.19원을 지출

2. 노인가구 소비실태의 시계열적 변화경향

[그림1] 75세 이상 노인가구 소비패턴 변화경향



□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각 소비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10년간 변화 경향을 분석해 보면, 생활에 필수적인 비목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주거와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은 증가하고 있음

○주거비가 전체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1.8%에서 2008년에는 5.2%로 증가

* 분석데이터(통계청 『가계동향조사』)의 “주거비” 비목이 월세 지출 및 기타 주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조사하고 있음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

○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은 1999년의 10.5%에서 2008년도에는 12.9%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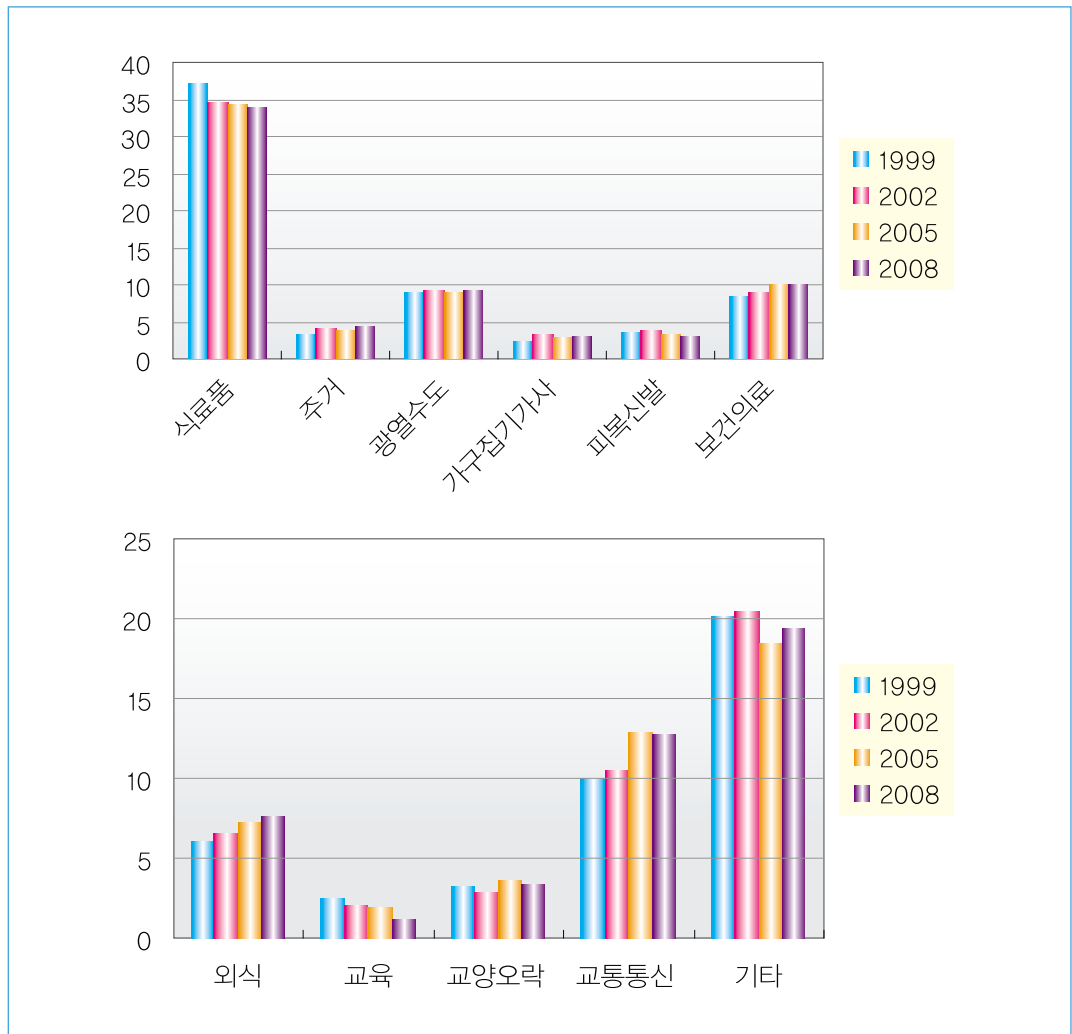
□ 외식비, 교양오락, 교통통신 등의 비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○외식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9년의 5.6%에서 2008년에는 7.1%로 증가

○교양오락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9년의 3.0%에서 2008년에는 3.5%로 소폭 증가

○교통통신에 대한 지출이 전체 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8.8%에서 2008년에는 9.1%로 소폭 증가

[그림2] 65-74세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경향



□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연소 노인가구의 소비패턴이 지난 10년간 변화한 경향을 살펴보면, 생활필수적 지출 가운데 식료품에 대한 지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보건 의료에 대한 지출비중은 증가

○ 식료품비가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37.2%에서 2008년에는 33.9%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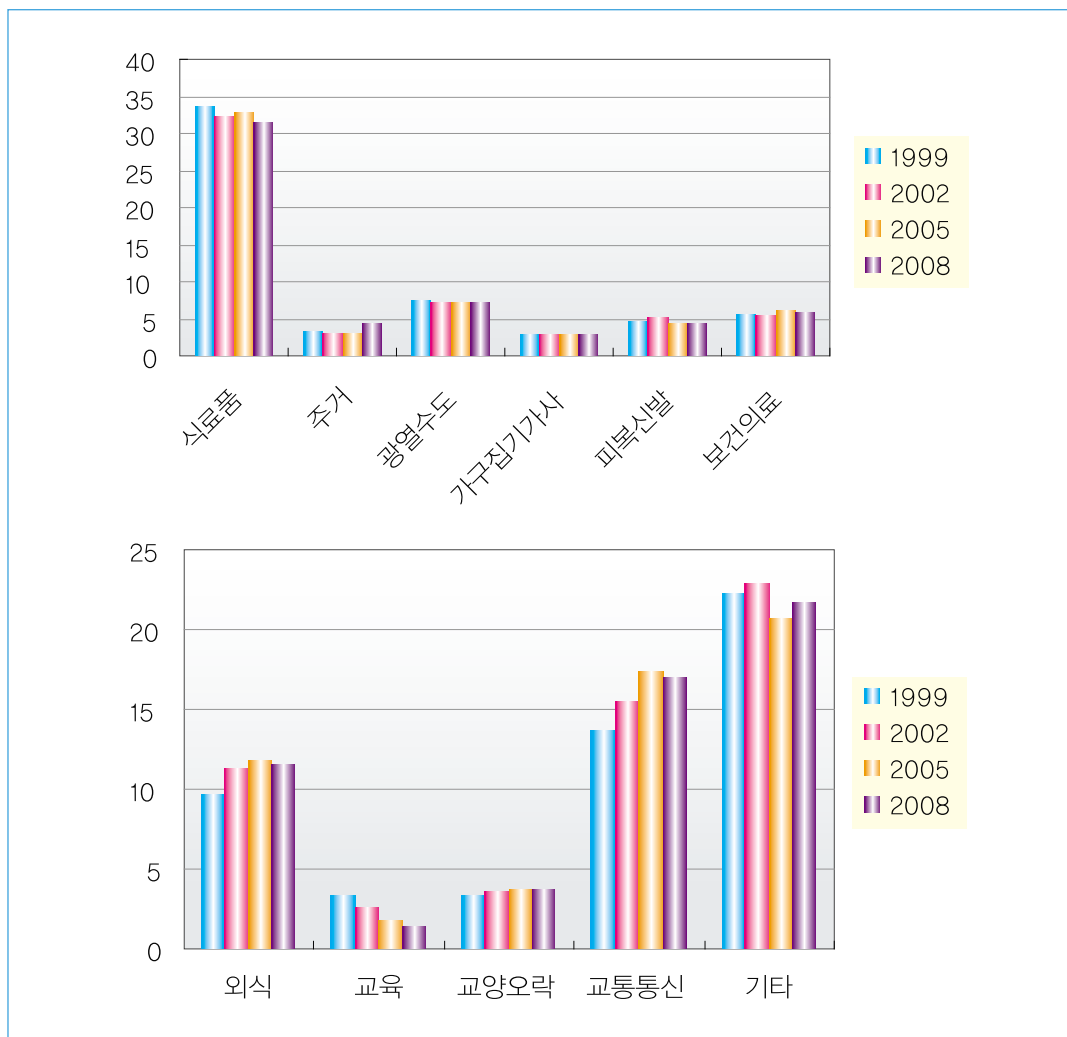
○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은 1999년의 8.5%에서 2008년에는 10%로 소폭 증가

□ 외식비와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비중은 뚜렷한 증가경향을 보임

○ 외식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9년의 6.1%에서 2008년에는 7.6%로 증가

○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9년의 9.9%에서 2008년에는 12.7%로 약 3% 포인트 증가

[그림3] 55-65세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경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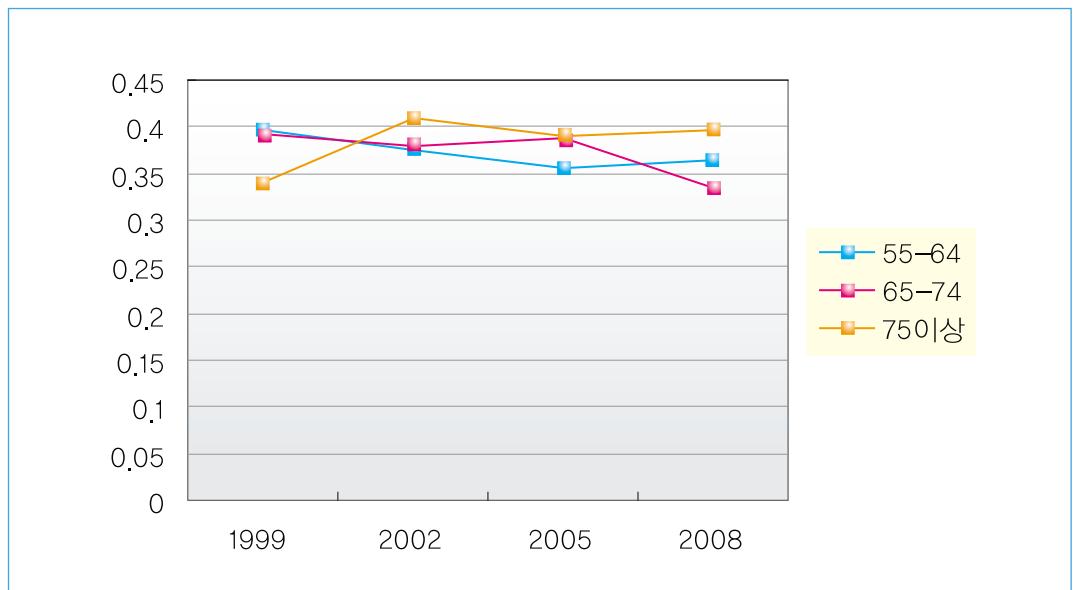
□ 예비노인 가구인 55-64세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 경향은 식료품의 소폭 감소와 주거비지출의 소폭증가를 제외하면 생활필수적 재화의 지출비중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- 식료품비에 대한 가구의 지출비중은 지난 10년간 33.6%에서 31.6%로 2%포인트 감소
- 주거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지난 10년간 3.4%에서 4.4%로 소폭 증가

□ 외식비와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비중은 증가하고 교육비 지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유지

- 외식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9년의 9.6%에서 2008년에는 11.6%로 증가
-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3.3%에서 1.5%로 감소
-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1999년의 13.7%에서 2008년에는 17.1%로 증가

[그림4] 소비지출 불평등도 변화 경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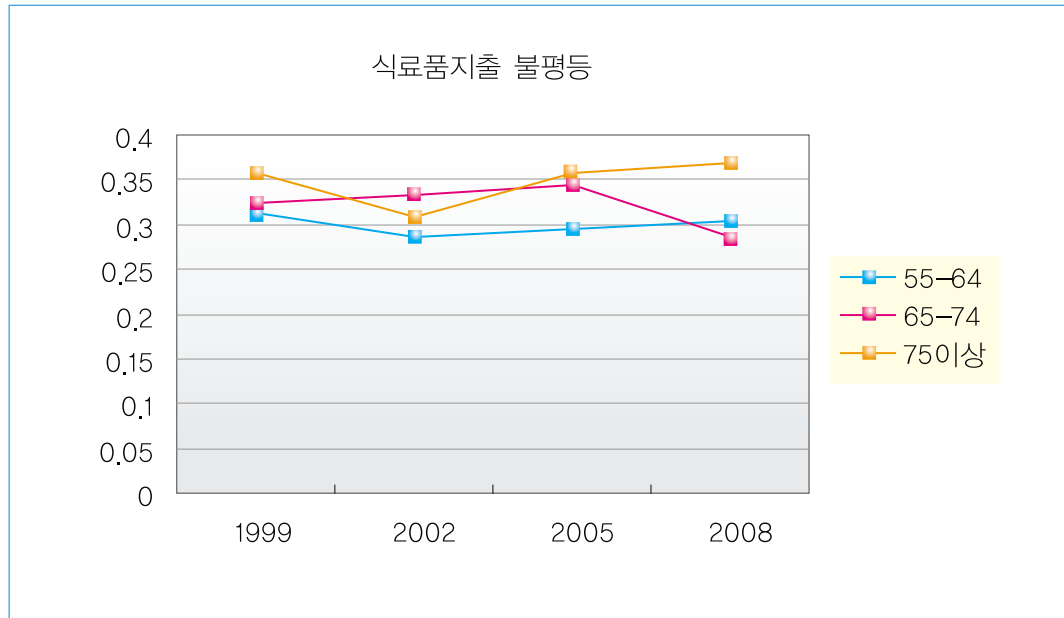
□ 전체 소비지출의 불평등도는 7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
- 1999년의 소비지출 지니계수 0.34008 → 2008년에는 0.39665로 증가

□ 65 - 74세 노인가구와 55-64세 예비노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불평등이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경향

- 65-74세 노인가구의 경우 1999년 소비지출 지니계수 0.39172 → 2008년에는 0.33438
- 55-64세 예비노인 가구의 경우 지니계수 0.39664('99) → 0.36451('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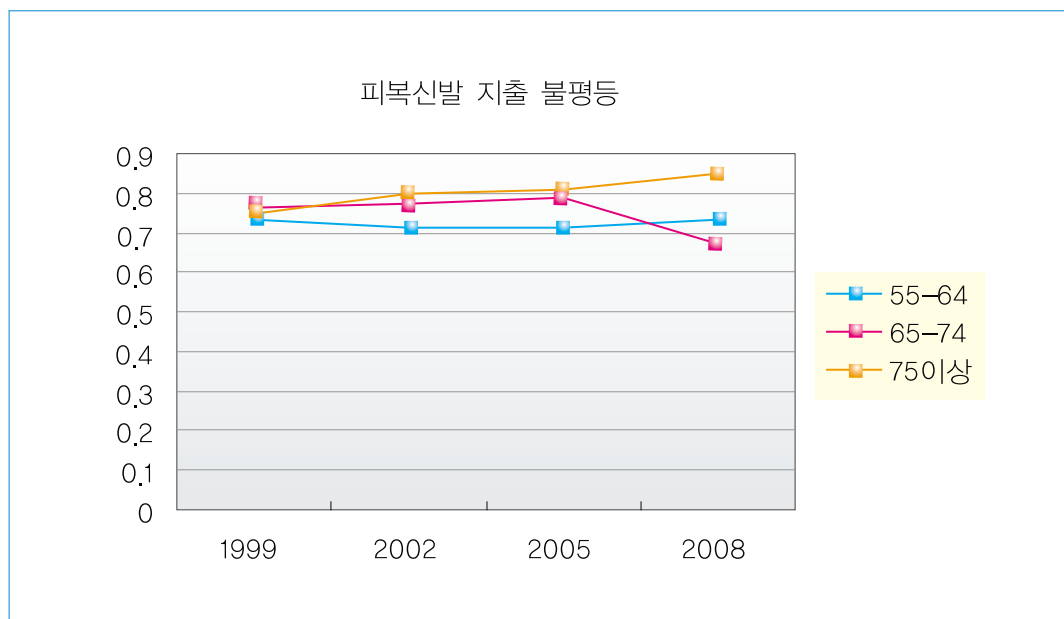
[그림5] 식료품 지출 불평등



□ 식료품 지출 불평등은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가구에서 증가 경향을 보이는 반면 65-74세 노인가구와 55-64세 예비노인가구에서는 감소

- 75세 이상 노인가구 : 0.35805('99) → 0.36873('08)
- 65-74세 노인가구 : 0.32312('99) → 0.28703('08)
- 55-64세 예비노인가구 : 0.31194('99) → 0.30286('08)

[그림6] 피복신발 지출 불평등



□ 피복신발은 의식주 영역에 속하는 필수재이나 불평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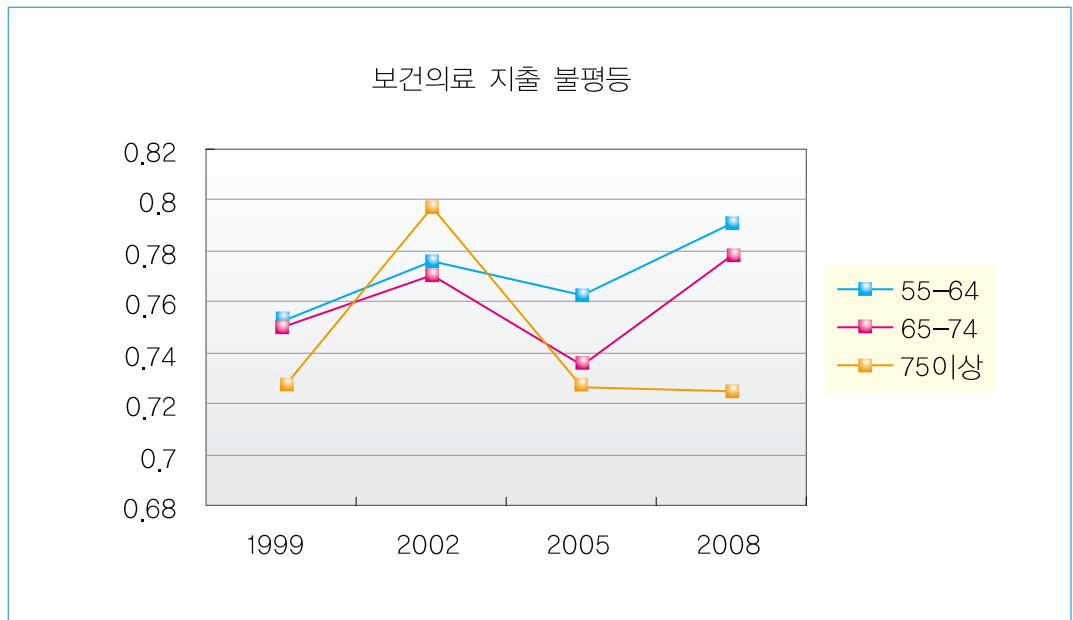
□ 7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증가 경향, 65-74세 노인가구 및 55-64세 예비노인 가구에서는 불평등도 감소 경향

○ 75세 이상 노인가구 : 0.74928('99) → 0.84795('08)

○ 65-74세 노인가구 : 0.7636('99) → 0.67372('08)

○ 55-64세 예비노인가구 : 0.7327('99) → 0.73094('08)

[그림7] 보건의료 지출 불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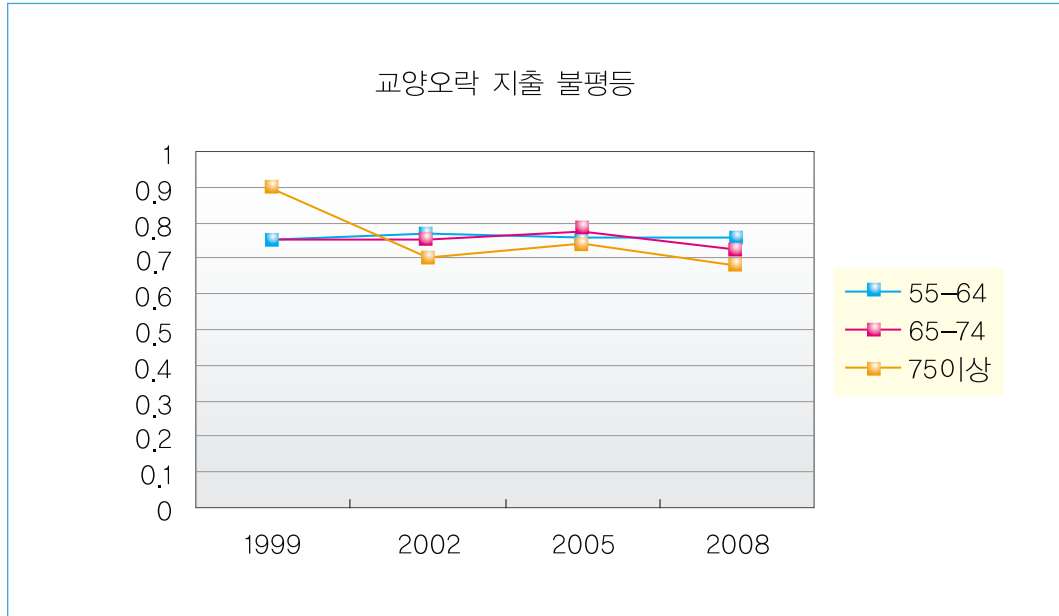
□ 보건의료비 지출불평등도는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불평등도가 2002년의 급격한 증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, 나머지 가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
○ 75세 이상 노인가구 : 0.72572('99) → 0.72494('08)

○ 65-74세 노인가구 : 0.75008('99) → 0.77837('08)

○ 55-64세 예비노인가구 : 0.75262('99) → 0.79115('08)

[그림8 교통통신비 지출불평등



□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교통통신비 지출 불평등도 증가, 65-74세 노인가구의 경우 감소, 55-64세 예비노인가구의 경우 비슷한 수준이 지난 10년간 유지

○ 75세 이상 노인가구 : 0.51012('99) → 0.5979('08)

○ 65-74세 노인가구 : 0.60309('99) → 0.46462('08)

○ 55-64세 예비노인가구 : 0.48083('99) → 0.4852('08)

3. 결론

□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지난 10년간의 소비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, 노인 및 예비노인가구의 연령대에 따라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경향 및 소비지출 불평등 실태가 상이하게 나타남

○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불평등 증가, 65 - 74세 노인가구와 55-64세 예비노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불평등이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경향

· 고령화된 노인가구일수록 소비지출 불평등 현상 심화

· 이는 노인이라는 동질적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불평등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

이소정 (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) 문의사항 (snowwill@kihasa.re.kr)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_01_01.jsp